

장유의 시묵음 《24장》의 사상예술적특성

김 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6권 171페이지)

재능있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수한 문학예술유산을 창조함으로써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여왔다.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는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수많은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학사를 더듬으면 재능있는 작가와 우수한 문학작품들이 다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 중세문학사에 아직까지 자기의 얼굴을 뚜렷이 나타내지 못한 문인들가운데는 외적의 침략과 봉건통치배들의 당쟁으로 복잡다단했던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장유(1587—1638, 자: 지국, 호: 계곡)도 있다.

장유는 조선봉건왕조후반기의 재능있는 시인이고 유명한 철학자이지만 현재까지 중세 조선문학사에서는 장유의 시작품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한데 그치였을뿐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장유의 시작품들을 더듬어보면 복잡다단한 당대 사회현실을 깊이 투시한데 기초하여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인민들을 동정하였을뿐아니라 자기의 진보적인 철학적견해를 구현한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한편 장유의 시들은 시형식활용과 소재탐구, 표현수법을 비롯한 형상수법에서도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있어 17세기이후 진보적시창작에 일련의 경험을 남겨놓았다.

장유의 문집인 《계곡집》(24책 34권)에는 당파싸움에 몰두하던 봉건통치배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진보적작품들을 비롯하여 근 1 500수의 시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장유의 우수한 시작품들은 많으나 이 글에서는 그의 특색있는 시묵음인 《24장》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24장》에서 《장》이라는것은 시문이나 노래의 한 절이나 단락을 말한다. 그러므로 《24장》이라는것은 2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시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장유는 매 단락마다 일정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소재목을 달아놓음으로써 한 단락이 한수의 시로 되게 하였다. 즉 그의 《24장》은 일정한 성질이나 상태를 노래한 24편의 시작품들로 이루어진 시묵음형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24장》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 그안에서 《큰것》, 《작은것》, 《먼것》, 《가까

운것》 등과 같이 24가지 성질이나 상태를 그대로 소재목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4장》에 속해있는 24편의 시작품들은 일정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자연현상이나 인간생활의 이모저모를 매 시구를 단위로 하여 열거하고있다.

장유의 《24장》은 주제사상적내용이나 예술적측면에서 다 특색을 나타내고있는 이채로운 시뭍음이다.

장유의 《24장》은 주제사상적측면에서 진보성을 나타내고있다.

장유는 1612년에 광해군정권을 반대하는 관리들의 반정부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었고 한적한 전라도 라주에서 12년간 류배살이를 하였다. 그는 광해군시기에 3년간 벼슬살이를 하면서 어지러운 정계현실을 목격하고 환멸을 느낀 사람이었다.

광해군시기 장유의 길지 않은 벼슬살이체험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당파적리익을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는 봉건통치배들의 죄행과 매관매직을 일삼고 헛된 명예만을 추구하는 어지러운 사회현실, 정계의 풍조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게 하였다. 바로 《24장》에 속한 시작품들에도 봉건사회현실의 불합리에 대한 장유의 비판정신이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시뭍음 《24장》의 주제사상적측면에서 두드러지는것은 우선 량심적이고 대바른 인재의 필요성과 어진 인재를 가려보지 못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당시 봉건사회의 인재등용정책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반영되어있는것이다.

어진 인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당시 봉건사회의 인재등용정책을 비판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쉬운것》, 《뜨거운것》, 《위험한것》, 《찬것》, 《편안한것》, 《아득한것》과 같은 작품들이다.

그의 시 《편안한것》에서는 어진 인재의 등용이 가지는 필요성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땅우에 기울지 않게 사발을 뒤엎고	覆盂地上不偏側
큰 산밑에 너럭바위 가로누웠다	太山山下磐陀石
강호에 숨어살며 아무 욕심 없고	巖居川觀白無欲
나라에 어진 신하 있어 만민이 즐거웁다	國有良臣萬民樂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의 제목이 《편안한것》으로 설정된데 맞게 자연과 인간생활에서 두드러지는 편만한 상태나 현상들을 매 시구마다 열거하고있다.

앞의 두구에서 시인은 편만한 상태의 대표적인것을 땅에 기울지 않게 엎어놓은 사발과 큰 산밑에 가로 누워있는 너럭바위와 같은 사물현상을 꼽고 뒤의 두구에서는 당시 인간생활,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장 편만한 상태를 꼽으면서 마지막시구에서 《나라에 어진 신하 있어 만민이 즐거웁다》고 노래함으로써 어진 신하,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장유는 사회정치사상에서 《민본》과 《안민》을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라가 나라로 되는것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기때문이다. 백성을 버리고 나라가 된다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있어본적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재물이 줄어들면 백성이 해를 입고 백성이 병들어 약하면 나라가 위태로운것은 필연적인 리치이다.》라고 하면서 백성의 편안을 주장하였다.

우의 시 《편안한것》의 마지막결구에서 노래된것을 통하여 장유의 《안민》, 《민본》관념은 바로 량심적이고 대바른 인재의 등용을 전제로 하고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당시 당파가 성행하던 봉건정계에서는 대바르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이 용납될수 없었고 오히려 아침을 모르는 대바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것은 장유의 시 《위태한것》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철갑선 타고 얇은 물결 건느려 하고	鐵船欲涉弱水波
백자 되는 장대끝에서 춤추며 뛰논다	百尺竿頭舞婆娑
하늘우의 돌다리에서 한밤을 지새고	天臺石橋半夜過
외로운 신하 우뚝 서서 아침하지 않네	孤臣特立無依阿

앞의 3개의 구를 무시하고 마지막결구를 통해보면 당파적편견이 없는 청렴결백하고 대바른 신하는 외로운 신하이며 당시 사회에서 아침을 모르는 신하의 처지는 벼슬에서 쫓겨나거나 자기의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워 가장 위태로운것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한편 시 《아득한것》은 량심적인 신하를 저버리고 그를 돌보지 않는 봉건사회 특히 임금의 처사에 대하여 일정하게 비판을 가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해쫓는 곳에서 보니 곤륜산은 잠자고	嵎夷回首睡崑崙
아득한 허공밖에 수십만리 또 있구나	大荒之外萬由旬
과부가 힘이 진해 도중에서 주춤하고	夸父力竭中逡巡
임금 사는 구중궁궐 은거지와 제일 멀다	君門九重隔清塵

*과부: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해와 경주하여 끝내 목말라 죽었다고 하는 옛 신화에 나오는 인물,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하고 큰일을 기도하는것을 비겨 이르기에도 한다.

시의 결구에서 《은거지》는 어지러운 정계에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떠나 은거생활을 하는 량심적인 사람들을 녀두에 둔것이라고 볼수 있다. 《임금 사는 구중궁궐 은거지와 제일 멀다》는것이 아득한것중의 가장 대표적인것으로 된다는 시인의 견해는 당시 량심적인 인간들의 불우한 처지를 보여주는것과 함께 그러한 인간들을 돌보지 않는 임금을 위시한 봉건 통치배들의 그릇된 처사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깔려있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 《찬것》에서도 표현되고있다.

흘간산 머리에서 참새가 얼어죽고	紇干山頭凍殺雀
북극의 층층얼음에 거부기갑 쭈그러졌네	北極層氷龜縮殼
나무군아이 맨 다리로 눈을 밟고 다니고	樵童踏雪赤兩腳
넓은 학식 지닌 선생 나그네가 되었구나	廣文先生坐上客

시에서는 가장 찬 상태를 시구마다 렬거하면서 맨 다리로 눈을 밟고 다니는 평백성—나무군아이의 비참상을 동정하였고 계속하여 재능과 학식이 있는 인재가 나그네가 되어 떠

돌아다니게 하는 당시 봉건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 감정이 응축되어있다.

장유는 당시 인재등용에서 나타나는 폐단의 원인이 매관매직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의 시 《쉬운것》과 《뜨거운것》에서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시 《쉬운것》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유명한 보검으로 지푸라기 자르기	昆吾之劍截草芥
사나운 바람불어 가벼운 먼지 날리기	衝風起兮揚輕壒
굴지의 힘장수가 흙덩이 한개 움직이기	五丁力士運一塊
황금가득 쌓인 집에서 권세 부귀 교섭하기	黃金滿屋交權貴

보는것처럼 시인은 쉬운것의 현상들을 매 시구마다 려거하다가 맨 마지막시구에서 황금 많은 집에서 권세와 부귀를 얻는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하면서 당시 황금의 많고적음에 따라 《인재선발》이 진행되는 한심한 정계현실에 대하여 풍자하고있다.

한편 시 《뜨거운것》에서는

끓는 샘물 흐르는데 시내가도 불타고	焦溪側畔湯泉流
남쪽지방 삼복철에 불구름이 떠도네	南交三伏火雲浮
꼬리에 불달려 성밖으로 뛰는 소	即墨城外燒尾牛
공후장상 문전으로 관리들이 찾아드네	五侯門前青紫稠

라고 노래하고있는데 공후장상들—집권파량반들의 집에 뻗질나게 관료들이 찾아든다는것을 뜨거운것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것으로 묘사하고있다.

이것은 봉건정부에서의 인재선발과 등용이 인간됨과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관대작들의 집문에 불달릴 정도로 찾아드는 관리들의 퇴물행위와 아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한줄 시구로 함축성있게 표현하고있다.

이 시는 매관매직과 전횡의 장본인이 바로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는 집권파량반들이라는것을 시사한것으로서 봉건사회에서 인재등용의 병폐를 정확히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듯 장유의 《24장》에 속한 시작품들가운데는 당시의 인재등용정책의 폐단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노래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시 묶음 《24장》의 주제사상적측면에서 두드러지는것은 또한 공리공담을 일삼고 허망한 생활을 추구하는 당시 그릇된 사회풍조에 대한 경멸의 감정이 반영되어있는것이다.

장유는 17세기뿐아니라 조선봉건왕조후반기를 대표하는 유물론철학자이며 시인이다. 그는 언제나 학자로서의 학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실속없는 허망한 생활관에 부정의 립장을 가지고있던 사람이였다.

공리공담과 허망한 생활에 대한 부정의 감정은 시 《한스러운것》, 《어지러운것》, 《술취한것》, 《어려운것》 등의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있다.

장유는 시 《한스러운것》에서 가장 한스러운것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벼슬없이 늙은 자 벼슬길을 결심하》는것으로 꼽으면서 능력이 없어 벼슬에 등용되지 못한 무능한자들

이 늙어서도 헛된 욕망을 잃지 않고 끝끝내 벼슬길에 나서려고 하는것을 신랄하게 풍자하고있다.

한편 시 《어지러운것》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개흙물 흘러들어 강물은 칠흑갈고	渥水入河如添黑
장안의 가을비에 진흙이 질적질적	長安秋雨泥漠漠
누룩 뜬 촌막걸리 거르지 못하겠고	村醪帶糟不曾漉
선비는 먼지 들쓰며 말발굽에 절을 하네	望塵學士拜馬足

시의 마지막결구에서 량반선비가 벼슬자리를 얻어보려는 타산밑에 말발굽에 의해 일어나는 먼지를 들쓰며 돌아보지도 않는 고관의 등뒤에 대고 절을 하는것을 개흙물이 흘러들어 강물이 흐려진것처럼, 장안의 가을비에 질적해진 진흙탕처럼, 거르지 못한 촌막걸리처럼 어지러운것으로 타매하고있다.

벼슬을 얻으려고 어리석게 행동하는자들을 풍자한 이와 같은 시적형상은 장유가 벼슬살이를 허망한 생활로 치부한데서부터 오는 필연적결과이라고 볼수 있다.

시 《즐거운것》과 《맑은것》, 《고통스러운것》은 벼슬살이를 허망한 생활로 간주한 시인의 립장이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다.

그는 시 《맑은것》에서 가장 맑은것의 하나가 벼슬살이가 아니라 《산속의 외로운 은일 처사 매화를 읊조리》는것이라고 하였으며 시 《즐거운것》에서는 판료생활이 즐거운것이 아니라 《소박한 농촌생활》이 《도리에 맞는 일》이며 가장 즐거운것의 하나로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시 《고통스러운것》에서는 《높은 벼슬 명함 쥐고 발을 주춤거리》는것이 고통스러운것의 대표적인것으로 인정하였다.

벼슬살이보다 농촌에서 마음편히 살기를 원했던 시인이였기에 벼슬살이를 허망한 생활로 인정하고 그에 뛰어들려는자들을 어리석은자들로 풍자조소하고있는것이다.

다음의 시들도 공리공담적이고 허망한 생활을 추구하는 당대의 그릇된 풍조를 조소한 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다.

둥근달 밝은데 해는 기울지 않고	月長滿兮日不傾
원금 울어 돌이 되고 바다 메워 평토 된다	冤禽 石填海平
옛날의 폭군들 오래 살길 원하고	秦皇漢武求仙靈
한생토록 앉아서 황하 맑기를 기다린다	人生坐待黃河清

원금: 전설에서 나오는 새이름. 옛날 어떤 공주가 바다에 빠져죽었는데 그 혼이 변하여 생긴 새라고 한다.

《《어려운것》》

술배 타고 떠다니며 일생을 마치고	拍浮酒船了一生
두 호걸이 부축해도 꾸불딱거린다	二豪侍側猶螟蛉
천년된 비석처럼 불려도 깨지 않고	玄石千年喚不醒
숨어사는 선생은 경전으로 배불리운다	下帷先生飫六經

《《술취한것》》

매 작품들의 결구들에서 시인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자들과 아무 실속없는 행위를 하는자들에 대하여 풍자조소하고있다.

우의 시 《어려운것》에서는 둥근해와 둥근달이 동시에 비치는것이라든가, 바다가 메워져 평토가 되는것과 같이 도무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상들을 려거하면서 마지막시구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실속도 없는것을 바라며 사는자들의 허망한 생활을 날카롭게 풍자조소하고있다. 《한생토록 앓아서 황하 맑기를 기다》리는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루어질수도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것이다.

아래의 시 《술취한것》의 마지막시구에서 시인은 장막을 드리우고 숨어사는 선생이 경전으로 배불리우며 사는것이 술취한자들의 행위와 같다고 풍자하고있다.

장유는 봉건유교교리를 부정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위에는 일련의 회의심을 가지고있었던 학자였다. 이로부터 그의 시 《술취한것》에서는 선비들이 경전을 맹목적으로 읊조리며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는것이 술취한자들의 망동과 다름이 없음을 시화하고있는것이다.

시뭇음 《24장》의 주제사상적측면에서 두드러지는것은 또한 리상적인 사회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념원과 그러한 시대를 기다리며 살아가려는 시인자신의 생활관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뜬 구름 다 걷히여 밝은 태양 빛나고	浮雲卷盡白日行
맑은 거울에 물이 고여 몸 피할수 없다	清鑑止水無遁形
절간등불 음침한 파계승들 비쳐주고	佛燈傳光破群冥
성스런 임금 해별로 백성들을 잘 살핀다	聖主當陽察下情

이것은 시 《밝은것》이다. 작품에서는 앞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생활에서 볼수 있는 밝은것의 대표적인 현상들을 려거하다가 마지막시구에서 《성스런 임금 해별로 백성들을 잘 살》피는것이 밝은것중의 가장 밝은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어진 임금》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리상적인 사회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념원이 반영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시 《편안한것》에서도 나라에 어진 신하가 있어 백성들이 즐거웁다고 노래하고있는데 이것역시 《어진 임금》의 밝은 정치와 함께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신하》들에 의거할 때 나라가 태평해진다는 시인의 사회정치사상의 발현이며 그러한 시대를 바라는 시인의 념원이 반영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백성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기초하고있는 봉건사회에서 《어진 임금》과 《어진 신하》에 의하여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누리는 리상사회라는것은 있을수 없다. 그러나 장유가 봉건의 테두리에서나마 《선정》을 실시할것을 주장한것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것이였고 그 념원을 문학작품에 반영한것은 일정하게 주목되는것이다.

장유의 시 《깊은 뜻이 없는것》은 밝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뜻있는 선비의 행동을 일정하게 긍정하고있는 작품이다.

샘줄기는 팔팔 끊어질 념려없고	源泉裊裊無絕期
서산으로 해가 저서 동해에서 솟아나네	日入崦嵫出咸池

들판에는 해마다 봄풀이 돌아나고 原上年年春草滋
선비가 굽어지내며 맑은 시절 기다린다 志士蠅屈待淸時

작품에서는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현상들을 깊은 뜻이 없는것으로 묘사하고 이와 함께 《선비가 굽어지내면서 맑은 시절 기다리》는것을 깊은 뜻이 없는 극히 레사로운것으로 인정하고있다. 이것은 시인자신의 처지와 행동을 그대로 시화한것이라고 보아진다. 광해군의 폭정으로 정계에서 밀려난 시인이 폭정이 없고 의로운 임금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리상사회를 기다리며 류배살이를 묵묵히 참고 견디는 모습이 이 시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는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장유의 시묵음 《24장》에 속한 시작품들은 17세기 전반기의 어지러운 봉건사회현실에 형상의 각광을 돌리고 사회적모순과 부정면을 예리하면서도 함축성있게 풍자비판함으로써 당시 시문학의 현실비판적경향을 강화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것은 진보적인 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장유의 시문학의 진보적특성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장유의 시묵음 《24장》은 예술적측면에서도 다른 시인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특색을 나타내고있다.

시묵음 《24장》의 예술적측면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시의 제재가 독특하고 새로운것이다.

그의 시묵음 《24장》은 자연이나 인간생활에서 볼수 있는 상태나 성질을 제재로 하여 창작된 특색있는 작품이다.

시묵음에 속해있는 24수의 개별적시작품의 소제목은 《큰것》, 《작은것》, 《위험한것》, 《편안한것》, 《탐욕스러운것》, 《한스러운것》, 《술 취한것》, 《술 깨는것》, 《매끄러운것》, 《뚫은것》, 《깊은 뜻이 없는것》, 《깊은 뜻이 있는것》, 《아득한것》, 《가까운것》, 《어두운것》, 《밝은것》, 《맑은것》, 《어지러운것》, 《고통스러운것》, 《즐거운것》, 《어려운것》, 《쉬운것》, 《뜨거운것》, 《찬것》 등으로 설정하였다. 즉 일정한 상태나 성질자체를 제재로 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제목화하고있다.

우의 소제목들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이나 상태로 설정되어있다. 이것은 장유가 철학자였으므로 고대 및 중세시기에 자연현상이나 인간생활을 거의나 음양법칙으로 설명하던 종래의 철학적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4장》의 매 작품들은 해당 제목에서 제시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들을 매 시행에서 각각 열거한 4구체형식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다른 시인들의 제목과 소재탐구와 형상창조방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것이다.

동기등을 옥돌로 갈아 기름을 치고 銅柱磨瑩仍塗脂
푸른 벼랑 겨울비에 드리워진 고드름 蒼崖冬雨長氷垂
삶은 비단으로 맑은 유리를 닦아내고 研光練帛淨琉璃
합덕에서 구슬살을 깨끗이 씻어낸다 合德新浴玉膚肌
(《매끄러운것》)

*합덕: 충청도 홍주지방에 있는 고을이름

털벌레를 짓이겨 가는 털천 만들고	蝟虫轉過細茸氈
가시나무 떨기속을 전진하지 못한다	荊棘叢中行不前
익지 않은 감알은 씹어넘기기 힘들고	柿子未熟嚼下咽
미숙한 글 생각하니 책을 엮지 못하노라	凝思腐毫不成篇

(《뽕은것》)

보는것처럼 일정한 성질이나 상태를 시의 소재, 제목으로 잡고 매 행마다 그 성질이나 상태를 뚜렷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들을 열거하면서 특색있는 시형상을 창조하고있는 것이다.

중세의 많은 문인들이 시의 제재를 다양하게 탐구하여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으나 장유의 《24장》과 같이 일정한 상태나 성질을 시의 제재로 잡아 시형상을 이채롭게 창조한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장유가 일정한 성질과 상태를 시적소재로 하여 시를 창작한것은 사물현상 하나를 대해도 그것을 무심히 대하지 않고 거기서 당시의 자연과 사회생활의 본질을 반영하려는 학자, 시인으로서 그의 적극적인 탐구의 결실로 설명할수 있다.

시뭍음 《24장》의 예술적측면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과장법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시형상의 이채로움을 나타내고있는것이다.

장유는 시작품들을 창작하면서 상징법과 과장법을 널리 리용하였는데 시뭍음 《24장》에는 과장법을 리용하여 시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24장》에 속해있는 시작품들가운데서도 《큰것》, 《작은것》, 《위험한것》, 《탐욕스러운것》, 《한스러운것》, 《술취한것》, 《술깨는것》, 《매끄러운것》, 《아득한것》, 《가까운것》, 《어두운것》, 《어려운것》 등의 작품들은 과장법을 리용한 장유의 시유산가운데서 예술적으로 비교적 우수하며 특색있는 작품들이다.

손가락을 튕겨 곤륜산을 가루내고	彈指兮崑崙粉碎
숨을 내쉬여 큰 덩이를 부신다네	嘔氣兮大塊紛披
우주를 룡락하여 털끝같이 만들고	牢籠宇宙輸毫端
큰 바다 기울여 벼루못에 붓는다네	傾寫瀛海入硯池

(《큰것》)

시 《큰것》에서는 어떤 개별적인 어휘나 시행에 과장법을 적용한것이 아니라 매 시행을 다 과장의 수법으로 일관시킴으로써 큰것의 상태를 극대화하였다.

이 시의 창작의도는 모름지기 인간생활에서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고 허세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의 행동을 풍자하는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한가울 짐승털끝에 산 솟고 강이 흐르고	秋毫之末奠山河
자그마한 먼지속에서도 지경이 나뉘인다	微塵之內分壘域
온 천지가 가리워지네 초명의 날개에	蔽 六合蟪蛄翅

만리를 날았다는게 겨우 만촉국이여라 幅負萬里蠻觸國

*초명: 모기의 속눈썹에 등지르는 자그마한 벌레라는 뜻으로서 아주 작은 벌레
만촉국: 달팽이 촉각끝의 두 나라라는 뜻— 옛날 우화에 나옴

우의 시제목은 《작은것》이다. 시 《큰것》에서는 큰것의 정도를 보다 확대하여 대상을 더 크게 하였다면 시 《작은것》에서는 작은것의 정도를 더욱 축소하여 대상을 매우 미세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도무지 있을수 없는 작은것의 상태를 시화하고있다.

인간생활에 비추어 이 시의 형상을 음미해보면 생활에서 매우 좁스럽고 답답한 인간과 그의 행동을 조소한것이라고 생각된다.

시 《큰것》과 《작은것》의 형상의도를 철학적각도에서 결부시켜보면 큰것우에 더 큰것이 있고 작은것속에 더 작은것이 있다는 상대성에 대한 철학자 장유의 견해가 담겨져있다고 볼수 있다. 이 작품들은 자연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여준 작품으로서 광대한 우주세계와 미세한 자연계에 작용하는 원리까지도 밝혀보고싶은 탐구정신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장유의 시묵음 《24장》의 시들에는 과장법을 리용한 이런 작품들이 많다.

눈과 속눈썹사이는 땅이 많지 않고	眉前睫上無多地
저쪽 지경 이쪽 경계는 매미날개사이여라	彼壘此界限蝸翅
자시가 다 지났는데 축시는 아직 안되고	子時過盡丑未至
애첩과 내시가 좌우에서 시중든다	嬖妾闖尹左右侍

(《가까운것》)

보는것처럼 시에서는 일정한 상태를 더욱 부각시킬수 있도록 과장된 시적표현들로 시화함으로써 인간생활과 자연현상, 시간과 공간의 이모저모를 특색있게 그려내고 과장된 시구들로 사람들에게 일정한 교훈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유모아적인 웃음을 자아낸다.

시 《아득한것》과 《위험한것》도 앞의 3개 시행들에서는 시인의 높은 상상력에 의거하여 상태나 성질을 더욱 부각시키는 과장된 표현들을 찾아 려거하였으나 제일 마지막시행에서는 《임금 사는 구중궁궐 은거지와 제일 멀다》, 《외로운 신하 우뚝 서서 아침하지 않네》 등의 결구로 노래하려는 현상이나 상태가 인간생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있는가를 밝히고있다.(앞에서 레문을 주었음)

자연과 인간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태나 성질을 과장법을 리용하여 특색있게 노래한 시묵음 《24장》은 장유의 예술적감각과 재능이 뚜렷이 발휘된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시묵음 《24장》의 예술적측면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시형식과 서정전개방식에서도 특색을 나타내고있는것이다.

중세 많은 시인들이 시묵음형식의 작품들을 많이 남겨놓았으나 장유의 《24장》과 같은 시묵음형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 시묵음은 《24장》이라는 종합적인 제목이 있고 그안에 《큰것》, 《작은것》, 《위험한것》 등 24개의 소제목들로 나뉘어져있다. 종합적인 제목이 있고 그안에 소제목으로 된 시가 24수나 되는것은 다른 시인들의 시묵음형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드문것이라고 본다.

더우기 성질이나 상태만을 노래하고있는 시들만을 묶어놓은 시목록형식은 장유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장유의 《24장》은 서정전개방식도 다른 시인들의 시작품에서 찾아볼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자시에서는 아무리 짧은 절구시에서도 감정정서의 흐름이 기승전결로 이루어지는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24장》에 속해있는 모든 시작품들은 정서적흐름이 기승전결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매개 시구가 논리적인 련결이 없이 일정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들을 라렬하는데 그치고있다. 얼핏 보면 《24장》의 시작품들은 서정구조가 짤리지 못하여 시적정서가 잘 안겨오지 않아 산만한 감을 준다고도 볼수 있다. 간혹 《24장》에 속해있는 매 시작품들은 자연과 인간생활에서 보거나 느낄수 있는 성질이나 상태, 현상을 심심풀이로 렬거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인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다.

4구체로 이루어진 매 시작품들의 마지막절구에는 시인이 말하자고 하는 형상적결론이 명백하게 주어져있다.

유명한 보검으로 지푸라기 자르기	昆吾之劍截草芥
사나운 바람불어 가벼운 먼지 날리기	衝風起兮揚輕壒
굴지의 힘장수가 흙덩이 한개 움직이기	五丁力士運一塊
황금가득 쌓인 집에서 권세 부귀 교섭하기	黃金滿屋交權貴

시 《쉬운것》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앞의 3개의 시구들에서는 쉬운것의 현상들로서 칼날이 예리하고 굳기로 유명한 보검으로 지푸라기 같이 보잘것없는것을 자르는것, 찌르는듯 사납게 불어치는 바람이 가벼운 먼지를 날리는것, 힘세기로 소문난 장사가 크지 않은 흙덩어리를 움직이는것을 꼽고있다. 이 시적형상에는 시인, 학자로서의 예민한 관찰력과 기지있는 형상수법활용의 재치는 느껴지나 특별한 사상정서적감흥은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절구인 네번째 시구에서는 황금이 가득 쌓인 집에서 권세와 부귀를 교섭하는것이 쉬운것중의 하나라고 함으로써 당시 인재등용의 불합리성을 신랄하게 풍자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명백하게 안겨오고있다.

매 시작품들의 사상적결론은 대체로 마지막시구에서 표현되며 앞의 3개의 시구에서 전개된 현상들은 시인이 절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결론을 비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것이다. 이로부터 시 《쉬운것》에서는 황금으로 권세와 부귀를 사는것이 보검으로 지푸라기 자르는것처럼, 사나운 바람이 가벼운 먼지를 날리는것처럼, 힘장사가 가벼운 흙덩이를 움직이는것처럼 매우 쉬운것이라는 형상적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정서적흐름의 견지에서 보면 앞의 3개 시구에서는 감정정서가 평탄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시구에서 급전비약의 방법으로 시인의 정서적주장을 승화시켜 명백하게 밝히고있다.

이와 같은 서정전개방식은 《24장》에 속한 모든 시작품들에서 보편적으로 리용되였다.

즉 《24장》에서 시인이 리용한 독특한 서정전개방식은 사회생활, 인간생활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단도직입적으로 형상적비유의 수법으로 밝혀내려는 의도로부터 탐구된것이다.

시묵음 《24장》의 예술적측면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운률조성의 기본수법인 압운법에
서도 다른 한자시와 일정하게 구별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자시의 운률은 평측과 함께 압운에 의하여 조성된다.

장유는 고시와 사, 잡체시 등에서 일운과 환운, 통운 등 다양한 방식을 리용하여 압운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일운방식 특히 축구운방식을 리용하고있는것이 주목된다.

축구운은 한자시의 매 시구를 따라가면서 압운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장유의 《24장》
에 속한 시작품들은 거의 모든 작품들이 축구운방식을 리용하여 운률을 조성하고있다.

《24장》에 속한 많은 시작품들은 척 보기에는 4구체로 된 7언절구 같지만 평측이 고르
롭지 않고 또 압운도 련의 끝에 하는 7언절구와 달리 매 시구마다 압운을 하고있다. 따라
서 《24장》은 7언절구시묵음이 아니라 잡체시묵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苦語

고통스러운것

波波吒吒入寒獄
夏畦掙土汗如漉
朱門懷刺足躑躅
詩翁撚髭思不屬

추위에 덜덜 떨며 극한지옥에 들어가고
한여름 이랑에서 흙 붙잡고 땀 거르기
높은 벼슬 명함 품고 발을 주춤거리고
시상이 안떠올라 늙은 령감 코수염 뜯네

難語

어려운것

月長滿兮日不傾
冤禽 石填海平
秦皇漢武求仙靈
人生坐待黃河清

둥근달 밝은데 해는 기울지 않고
원금 울어 돌이 되고 바다 메워 평토 된다
옛날의 폭군들 오래 살길 원하고
한생토록 앉아서 황하 맑기를 기다린다

첫번째 시에서는 매 시구마다 각각 《獄》, 《漉》, 《躑》, 《屬》과 같이 같은 운목의 글자들
을 배치하여 압운을 하고있다면 두번째 시 역시 《傾》, 《平》, 《靈》, 《清》 등 같은 운목의 글
자들로 압운하고있다.

《24장》에 속한 시들은 일부 시편들을 제외하고 다 우와 같은 축구운방식으로 압운을 하
고있다.

이상과 같이 시묵음 《24장》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예술적측면에서 다 특이한 작
품으로서 장유의 창작적개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일뿐아니라 우리 나라 중세시문학
의 다양성을 립증하는데 일정하게 이바지하고있다.

실마리어 장유, 《24장》, 시묵음